



유비저(말레이병) 예방



유비저(類鼻疽)란?

- 유비저(類鼻疽)는 그람 음성(gram negative) 간균인 '버크홀데이라 슈도말레이'에 의해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병으로 흔히 말레이병(Melioidosis)으로 알려져 있다.
 - 동남아시아에서 나타나는 비저(鼻疽)와 유사한 질환으로, 메리오이드증이라고도 함
 - 말, 당나귀, 노새 등의 비강, 기관점막, 폐, 비장, 간장 등의 내장실질, 피부, 림파절 등에 비저결절을 형성하는 전염병으로써 급성형과 만성형이 있음
 - 슈도모나스 말레이(Pseudomonas mallei)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주로 비강에 병변을 나타내는 것을 비저, 폐에 병변을 보이는 경우를 폐비저, 피부에 병변을 형성하는 것을 피저라고 부름. 당나귀나 노새는 말에 비하여 급성형이 많음
 - 고양이, 개, 사람에도 감염되나 양, 돼지, 소는 저항성이 있음
- 현재까지 알려진 유행지역은 호주 북부, 태국 북동부, 중국 남부,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홍콩,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대만임



◎ 유비저 유행지역 및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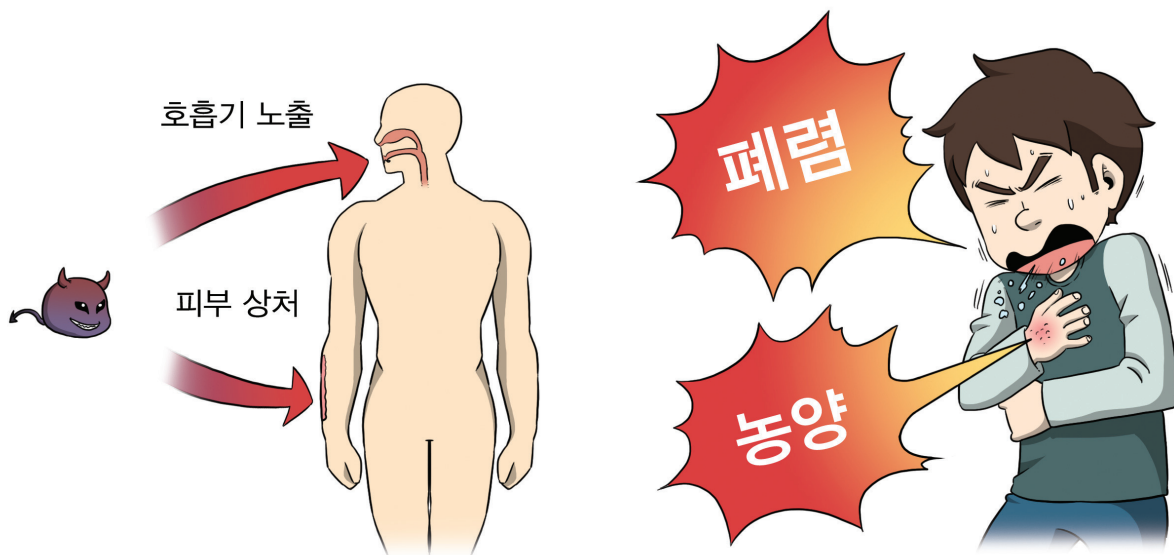
- 유비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4군 감염병('10.12.30부터)'으로 지정되어 신고 대상 질환이다.
 - 현재 총 7건의 사례가 인지되었고 이 환자들은 모두 해외에서 감염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사망하였음
 - ※ 발생현황 (2003~2011) : 3명 사망, 3명 치료 후 회복, 1명 치료 중



감염 경로 및 증상

✓ 감염 경로

- 유비저 유행 국가의 토양과 물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노출경로는 흡입(호흡기 노출)이며 피부 상처, 경구섭취 등을 통해 감염
 - 사람간 감염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 후 잠복기는 수 일에서 수 년까지 매우 다양함
 - 유행 지역에서는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감염자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 발병함
- 유행지역에서 폭우, 쓰나미 등 비전형적인 기상요인이 있을 시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물과 바람이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됨



✓ 주요 증상

- 임상증상은 전신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대체로 세균성 패혈증과 관련된 증상(폐렴, 농양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남
 - 폐렴 : 쇼크, 호흡부전, 신부전, 의식손실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올 수 있음
 - 농양 생성 : 폐, 간, 비장, 신장, 피부 침범

✓ 진단 및 신고기준

- 진단은 검체(혈액, 객담, 농양 등) 검사를 실시하여 버크홀데이라 슈도말레이균 분리 동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
 - 임상 소견이 있으면 '환자' 로 신고
 - 임상 소견이 없으면 '병원체 보유자' 로 신고
 - 신고는 시·도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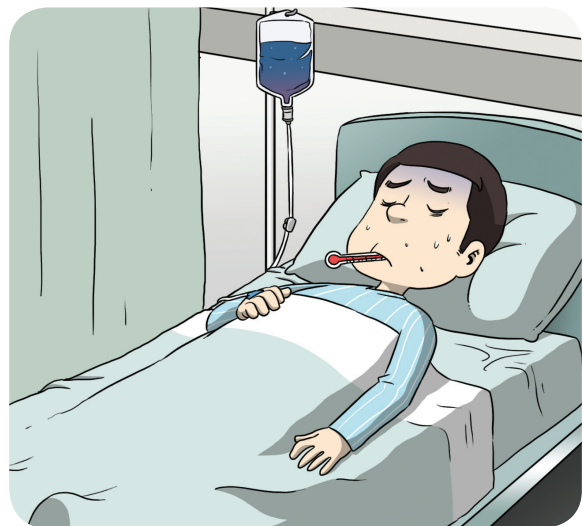
치료 및 예방

✓ 치료법

- 세프트아지딴(Ceftazidime)이 중증 유비저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등의 항생제 병용요법이 권장
-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

✓ 예방법

- 유비저 예방 백신은 없으며, 치명률이 높고 많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대책과 병원체 관리가 필요함
- 동남아시아, 호주 북부지역 등 유행지역에서 여행 및 근무하는 근로자는 토양이나 빗물에 피부가 직접 노출 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특히 피부 상처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 외부에서의 활동이나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함
- 호흡기 감염은 감염지역에서 예방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기상이변이 있을 시에는 외부에서 마스크 및 장갑 착용을 권고
- 해외로 근로자를 파견할 시에는 반드시 위의 예방법에 대해 철저한 교육이 필요



✓ 발생 의심 시 대처법

- 해당지역 체류 시 발열이 있을 경우 그 지역의 적절한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하며, 만약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닐 경우에는 신속히 귀국하여야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

구분	내용	종류
제1군 감염병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2군 감염병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디프테리아, 백일해(百日咳), 파상풍(破傷風), 홍역(紅痃),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풍진(風疹),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水痘)
제3군 감염병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말라리아, 결핵(結核), 한센병, 성홍열(猩紅熱), 수막구균성수막염(髓膜球菌性髓膜炎),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發疹熱), 쯔쯔가무시증, 렘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炭疽), 공수병(恐水病), 신증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梅毒), 크로이츠펔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펔트-야콥병(vCJD)
제4군 감염병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類鼻疽), 치쿤구니아열
제5군 감염병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 **지정감염병** :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성매개감염병** :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인수공통감염병**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의료관련감염병** :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